

## 생명의 떡

1/13 월

### 요 6:33, 35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입니다.”

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 창 2:8-9

8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 계 22:1-2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1/14 화

### 요 6:27, 32

27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1) – 7 주차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3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떡을 여러분에게 준 이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참떡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 사 55:2

2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에 돈을 들이고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내 말을 잘 듣고 좋은 것을 먹어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여라.

### 요 3:14-16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1/15 수

### 요 6:51, 53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2025.01.13~ 2025.01.19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 요 6:47

47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 요 1:12, 29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 출 12:4, 7-8

4 만약 어린양에 비해 집안 식구가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람 수를 감안하여 어린양을 고르되, 각 사람이 먹는 양을 가늠하여 어린양을 먹을 인수를 계산해야 한다.

7 그리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양을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8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 1/16 목

**요 6:55-57**

55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14:19-20**

19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므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요 6:9**

9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막 6:42**

42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 1/17 금

**요 6:63**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1) – 7 주차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4:26**

26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 20:22**

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고전 12:3**

3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며,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후 3:17**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후 5:16**

16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체에 따라 알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을 것입니다.

## 1/18 토

**요 6:48, 68**

48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 1:1**

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 3:16**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5:24**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 17:8**

8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그들이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엡 6:17-18**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1/19 주일

출 16:13-19, 31-33

13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을 뒤덮었고, 아침에는 진 주변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14 이슬이 스러진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잘고 둉근 것이 있었는데, 마치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잘았다.

15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서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떡입니다.

16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라. 너희 가족의 인수에 따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각 사람이 자기 천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

17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다.

18 그러나 그들이 거둔 것을 오멜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둔 것이다.

19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마십시오.”

31 이스라엘 집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희고, 그 맛은 꿀로 만든 전병 같았다.

32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나를 한 오멜 가득 채워 대대로 보관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게 한 이 양식을 자손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1) – 7 주차

33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 그 안에 만나 한 오멜을 가득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보관하십시오.”

계 2:17

1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찬송: 187 (英) 날마다 예수 먹으라 크고 작은 시련 속에

1 날마다 예수 먹으라 크고 작은 시련 속에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사람인 그를 먹으라  
더 예수를 먹어 더 예수를 먹어  
그분의 인성 있는데 영양실조 웬 말인가?

2 예수적인 사람 되는 그날까지 예수 마셔  
사막에도 강이 흘러 목마름 사라지도록  
더 예수를 마셔 더 예수를 마셔  
그분의 인성 있는데 목마름이 웬 말인가?

3 하나님 계획 완전히 이루도록 예수 먹어  
한 지방 한 교회로서 한 사람 표현되도록  
다 예수를 먹어 다 예수를 먹어  
참 소제이신 예수를 회막 안에서 누리세.